

# 류현진, 워싱턴전 50닝 2실점 호투...PS 통산 3승 달성

다비전시리즈 3차전 선발등판...다저스 10-4 역전승

시리즈 2승1패 리드...챔피언십 진출에 단 1승만 남겨

류현진(32·LA다저스)이 포스트시즌 통산 3승을 달성하며 LA 다저스를 구했다.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다비전시리즈(5전3선승제) 워싱턴 내셔널스와 3차전에 선발등판해 5이닝 4피안타(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6회초에 대거 7점을 뽑는 빅이닝을 만든 다저스가 10-4로 승리, 류현진은 승리투수를 했다. 올 시즌 포스트시즌 첫 승이자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3번째 가을야구 승리이다.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2승1패를 기록,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이날 류현진은 완벽하지 않은 구위에도 불구하고 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1회말 선두타자 트레이 터너를 3루 땅볼로 잡은 류현진은 후속타자 애덤 이튼과 6구 승부 끝에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다. 이어 강타자 앤서니 랜딘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한숨 돌렸지만 다음 타자

후안 소토에게 가운데 담장을 넘어 가는 투런포를 허용했다.

이튼을 내보낸 뒤 연이어 견제구를 던진 류현진은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포심 패스트볼 제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제 피홈런으로 이어졌다.

류현진은 다음 타자 하위 켄트릭을 유격수 땅볼로 잡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2회말부터 제구력이 살아났다. 류현진은 커트 스즈키, 브라이언 도저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낸 뒤 마이클 테일러까지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삼자범퇴를 완성했다. 감을 잡은 류현진은 3회말 역시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하지만 4회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선두타자 랜딘에게 좌전안타를 내준 뒤 소토에게 연속타를 허용했다. 소토의 빗맞은 타구는 좌익수 앞 절묘한 위치에 떨어졌다.

그러나 후속타자 켄트릭을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스즈키를 3루 땅볼로 이끌며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류현진은 5회말 역시 1사 후 테일러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했으나

대타 라이언 짐머만을 1루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터너를 고의4구로 내보낸 뒤 계속된 2사 1,2루에서 이튼을 좌익수 라인드라이브 아웃으로 잡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다저스 타선은 워싱턴 선발 아니발 산체스에게 쫓겨 득점을 뽑지 못했다. 몇 차례 찬스에도 불구하고 5회초 맥스 먼시의 솔로홈런을 제외하고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1-2로 끌려갔다.

하지만 6회초 대반격에 나섰다. 워싱턴의 바뀐 투수 패트릭 코빈을 상대로 코디 벨린저가 우전안타로 포문을 열더니 데이빗 프리즈의 우중간 안타로 2사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 러셀 마틴이 좌측 담장 앞에 떨어지는 깊숙한 2타점 2루타를 작렬, 3-2로 경기 뒤집는 데 성공했다.

다저스는 이어 카케 에르난데스도 좌익수 담장 앞에 떨어지는 2타점 안타를 추가했고 저스틴 터너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 홈런을 쏘아올려 순식간에 8-2로 달아났다.

승기를 잡은 다저스는 마틴이 9회초 투런포를 터뜨리며 승부에 쉼



기를 박았다.

다저스는 두 번째 투수 조 켈리가 볼넷 2개와 폭투를 남발하며 흔들렸으나 세 번째 투수 윌리엄 윌리아스가 위기를 모면하는 피칭으로 2점을 내주는 것으로 막았다. 이어 아담 콜라레코와 마에다 겐타, 켈리 젠슨이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타선에서는 류현진의 도우미 포

수 마틴이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멀티홈런으로 4타점을 날려 팀 승리를 이끌었다. 터너 역시 3안타 3타점으로 필필 날았다. 벨린저는 포스트시즌 첫 안타를 시작으로 멀티히트까지 완성하며 감을 찾았다.

정규시즌 워싱턴 상대 2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0.61을 기록한 류현진은 이날 큰 경기 압박감 속

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지만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다했다. 류현진의 호투는 대역전극의 발판이 됐고 스스로와 팀이 동시에 사는 결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반면 워싱턴은 선발투수 산체스가 호투했으나 두 번째 투수 코빈이 와르르 무너지며 시리즈탈락 위기에 놓였다. 단, 에이스 맥스 슈어저 등판을 아끼며 4.5차전에 승부를 걸 수 있게 됐다.



전북 현대 문선민(왼쪽) 울산 현대 박주호

## 이길 때는 같이, 넘어질 때도 함께... 울산-전북 우승경쟁 '깜깜'

33R까지 1위 울산 69점, 2위 전북 68점...잔여 5경기

하나원큐 K리그1 2019가 지난 6일 전국 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펼쳐진 정규라운드 마지막 33라운드 경기와 함께 1차 정리점돈을 마쳤다.

파이널A와 파이널B를 구분 짓는 마지막 순위인 6위 싸움의 최종 승자는 포항스틸러스였다.

포항은 울산현대를 2-1로 꺾고 14승6무13패 승점 48점으로 최종 5위가 돼 파이널A에 합류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던 상주 상무도 강원FC를 역시 2-1로 꺾었으나 아쉽게 쓴잔을 마셨다. 상

주와 강원이 나란히 승점 46점을 기록했지만 강원이 다득점에 앞서 6위, 상주가 7위가 됐다.

이제 1-6위가 포진된 파이널A에서는 우승팀과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3위 이내)을 가리는 경쟁이 펼쳐지며, 7-12위가 모인 파이널B에서는 강등을 피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된다. 역시 백미는 '역대급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울산과 전북의 우승 경쟁이다.

33라운드 현재 1위는 20승9무4

패 승점 69점의 울산이다. 그리고 전북이 1점 뒤진 68점(19승11무3패)으로 2위에 올라 있다. 3위가 승점 54점의 FC서울이니 올해 우승투표는 두 팀 중에서 결정된다. 양강 체제는 일찌감치 굳어졌으나 두 팀의 균형은 좀처럼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 잘 나갈 때는 나란히 잘하고 넘어질 때는 함께 넘어진 탓이다.

시즌 초반부터 근소하게라도 앞서 갔던 쪽은 주로 울산이었다. 이 흐름이 바뀐 것은 지난 8월16일 전주에서 열린 두 팀의 26라운드 맞대결이었다. 경기 전까지 2점차로 뒤져 있던 2위 전북은 울산을 3-0으로 완파하고 1위 자리

를 탈환했다. 만약 전북이 패했다면 5점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울산이 도망치지 못했다. 이후로는 누구도 치고 나가지 못하는 흐름이다.

전북은 울산전 승리 다음에 이어진 성남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에 그쳤다. 반면 울산은 상주를 5-1로 대파하고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에는 울산이 기세를 잊지 못했다. 울산은 9월1일 인천, 9월14일 경남 등 하위권 팀들과의 2연전에서 거푸 3-3으로 비기며 주춤했다. 그 기간 전북은 서울과 상주를 연파하고 다시 순위표 꼭대기에 올랐다.

하지만 다시 전북이 3경기에서

1승1무패 부진에 빠지며 승점을 꽤 잃었다. 그 사이 울산은 수원-성남-강원을 모두 격파, 3연승을 질주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이 근래 이렇게 더딘 걸음을 보이던 시즌도 없었고 울산이 김도훈 감독 징계 해제 후 다시 탄력을 받으며 올해는 정말 울산이 왕좌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런데 쉽지 않다.

2019년 두 팀에게 남은 경기는 단 5번이다. 맞대결이 한 차례 남아 있으나 지금의 격차는 큰 의미 없다.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팀이 가려질 가능성은 꽤 높고, 다득점 계산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33라운드 현재까지 두 팀의 득점은 64득점으로 동일하다. 득실차에서는 전북이 +34로 +32 울산에 근소하게 앞서 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화순군  
HWASUN-GUN

임대정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시

**BUS TOUR**

#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시→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